

텔레비전 뉴스영상과 세트디자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f News Image & Television News-set Design

김현수

대구대학교 대학원 미술.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김영호

대구대학교 대학원 조형미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

Kim, Hyun-soo

Dept. of F.A.&Design, Graduate School(Doctor) TGU

Kim, Young-ho

Dept. of Visual Design, TGU

• Key words: Television, Set Design, Broadcasting

1. 서 론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저마다 뉴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앵커의 육성과 발굴에 엄청난 돈과 노력을 기울이며, 취재기자과 카메라기자, 영상편집자등을 육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타 방송사에서 스카웃을 하기도 한다. 이는 텔레비전뉴스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방송사의 위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까지의 텔레비전 방송사 경영진은 뉴스 원고와 뉴스화면에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앵커나 뉴스세트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TV 영상세대가 사회 구성원의 주류를 이루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정부'의 언론통제시대를 지나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방송사 간의 뉴스의 내용과 상황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자 방송사마다 뉴스를 차별화하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사의 내용과 보도영상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뉴스앵커와 뉴스세트디자인에 대해 저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네트워크 중앙방송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사는 아직도 세트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세트 디자인과 뉴스영상과의 상호관계와 뉴스세트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2. 영상시대(映像時代)

영화가 1895년 프랑스의 그랑 카페(Grand Café)에서 루미에르(Lumière) 형제에 의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발표된 이래 아직까지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영화의 뒤를 이어 탄생한 텔레비전은 대중매체(大衆媒體, Mass-media)로서 각광을 받으며 영상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고 현대인에게 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Video Tape, Video CD, DVD 등 영상저장매체와, Divx, wmv, rm 등 디지털파일을 비롯해 LCD 대형전광판, 인터넷 동영상폰, 위성 화상전화 등 멀티미디어의 개발과 보급으로 현대는 '영상의 시대'이며 영상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의 사실성과 영상의 지표적 기능에 힘입어 타매체를 압도하며 텔레비전 방송사가 언론매체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3. 텔레비전 뉴스와 세트디자인

3-1. TV 뉴스 영상의 구성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정보와 음성정보의 복합체이다. TV News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 매일 일어나는 사건과 사회적 상황에 대해 기자(記者)가 이를 취재, 편집해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은 카메라기자가 촬영한 보도영상(뉴스화면), 뉴스 앵커를 촬영한 앵커화면, 앵커화면의 바탕이 되는 뉴스세트(News Set), 타이틀 및 컴퓨터 그래픽 화면과 자막이 있다. 자막은 영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상징기호(象徴記號, Symbol)에 해당 된다. 컴퓨터 그래픽 화면은 뉴스영상에서 가끔씩 삽입되어 편집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V 뉴스화면에서 주도적으로 제시되는 '보도영상' '앵커화면' '뉴스세트'에 한해서 연구의 범위를 삼고자 한다.

3-2. Color 텔레비전 방송과 세트디자인

1980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칼라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칼라방송의 시작으로 텔레비전 뉴스도 뉴스영상과 더불어 세트와 분장, 의상 등 TV 미술 전 부문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이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부문이 세트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흑백시절에는 세트가 돋보이지 않았으나 Color 방송이후에는 세트 디자인에 따라서 TV 프로그램의 질이 결정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3-3. 뉴스세트의 종류와 분류

보도국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세트를 광의의 '뉴스세트'로 볼 수 있고 협의의 뉴스세트는 '뉴스에 사용되는 세트'로 볼 수 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대부분 보도국이나 스포츠국에서 제작을 담당한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대분류인 보도, 교양, 오락의 3분류법에 의하면 보도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뉴스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

3-4. 뉴스세트 Design의 결정과정

우리나라 TV방송사는 봄, 가을 두차례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TV 뉴스도 이 시기에 맞춰서 앵커를 교체하기도 하고 뉴스세트 디자인도 바꾼다.

뉴스세트의 변경에 대한 보도국의 데스크회의에 따라서 세트디자이너에게 새로운 뉴스세트에 대한 상의를 하게 되며 세트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세트디자이너가 몇 가지 시안을 디자인해 오면 데스크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결정한다.



3-5. 뉴스세트의 제작과정

뉴스세트 디자인이 결정되면 방송사 자체 세트실에서 제작을 하거나 외주업체에 맡겨서 세트를 제작하게 된다. 방송사마다 세트제작인력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방송사는 자회사 형태로 세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3-6. 뉴스세트와 뉴스영상의 관계

뉴스세트와 뉴스영상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TV를 통해서 앵커화면이 방송되기까지는 세트디자이너, 메이컵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카메라감독, 조명감독, 영상감독, 기술감독, 뉴스PD 등 여러 가지 직종의 방송인이 관여하고 있다.

3-7. HD Digital 방송과 뉴스세트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의 디지털방송은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시험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2003년 12월부터 광역시 지역에서 시험방송을 하고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을 하게 된다. 한편 위성방송이 전국적으로 디지털방송을 하고 있으나 HD(High Definition)급 화질의 방송이 아니라 SD(Standard Definition)급 디지털방송을 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방송도 올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공중파 TV3사(KBS, MBC, SBS)는 디지털방송을 HD급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기자재와 콘텐츠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HD Digital 방송이 이루어지면 앵커의 땀구멍까지 묘사가 되는 고선명 화면이 TV를 통해서 방송되게 된다. 당연히 뉴스세트도 현재보다는 훨씬 정밀해야만 한다.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 방식보다 HD급 디지털방송은 3배 이상 고화질이기에 때문에 뉴스세트가 그만큼 정밀해져야만 한다.



4. 중앙과 지역방송사의 영상.미술시스템의 비교

4-1. 중앙과 지역방송사의 미술시스템

중앙방송사는 대부분 미술감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지역방송사는 미술감독이 없이 세트디자이너, 촬영감독, 조명감독, 영상감독 등 따로 따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며 뉴스PD가 미술감독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뉴스PD는 취재기자 출신이거나 뉴스 편집과 운영만을 전담하는 편집기자 출신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4-2. 중앙과 지역방송사의 인적시스템

공중파 TV 3사는 TV미술부문 자회사를 운영할 만큼 인적으로 풍부하다. 하지만 지역방송사는 대부분 1-2명의 세트디자이너와 세트제작자가 뉴스세트와 방송세트를 담당하고 있다.



4. 결 론

지역방송은 미술감독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직종 간에 따로 따로 업무를 수행한다는데 있다. 즉 뉴스세트디자이너는 뉴스세트를 무대디자인처럼 생각하고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뉴스세트는 뉴스의 시작과 끝에는 단독으로 TV카메라에 촬영되어 방송이 되지만 앵커화면에서는 앵커가 주화면이 되고 세트는 배경화면이 된다. 세트디자이너는 육안(肉眼)으로 봐서 보기 좋게 디자인을 할 것이 아니라 TV로 방송되었을 때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앵커화면에서는 앵커가 돋보이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앵커화면을 잡는 각도의 배경은 채도를 낮춰야 하고 대각선이나 미세한 선이 없도록 디자인을 해서 Aliasing현상이나 Moire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촬영감독은 지나친 Pan-focus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앵커화면에서 앵커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뉴스세트가 너무 선명하게 묘사되면 앵커에 대한 시선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 앵커를 돋보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Out of Focus기법등을 적절하게 사용 해야한다. 이와 같은 영상미술디자인의 전체적인 완성을 위해서 촬영감독과 조명감독 그리고 세트디자이너간의 협력체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방송되는 TV화면을 분석연구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뉴스영상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지휘를 담당할 미술감독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미술감독은 미술과 디자인 그리고 영상과 조명뿐만 아니라 분장과 의상 등에도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